

# 새마을 운동의 어제와 오늘

내무부 새마을 담당관 송 언 종

## 1. 새마을운동이란 무엇인가?

새마을운동은 마을 주민들이 반성·자각과 분발을 바탕으로 근면, 자조, 협동하는 새마을정신을 불러 일으키고 이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을 증대하며 도의와 기강을 바로 세워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잘사는 마을→살기 좋은 고장→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다. 노력하는 국민운동이라고 이를 정의할 수 있다.

이와같은 새마을운동의 의의를 몇가지의 개념요소로 분류하여 알기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새마을운동의 목적은 잘 살아 보자는데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대광실

좋은 집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새마을운동이 추구하는 잘살기는 경제적 외형적 부분만으로 불충분하다. 적어도 다음 세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 첫째 : 잘살기의 내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물질적 부와 함께 정신적으로도 건전하고 품위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물적인 부+정신적인 품위·만족)

○ 둘째 : 잘살기의 주체에 있어서는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식의 개별적·배타적·이기적인 부의 개념이 아니고 이웃과 마을 주민 그리고 나아가서는 겨레와 국민들이 함께 고루 잘사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한다. (공간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잘살기)

○ 셋째 : 잘살기는 시간적으로 오늘에 국한되지 않고 내일은 물론 영원한 잘살기를 지향한다. 우리들 당대가 잘살아야 하겠지만 나아가서는 자손만대에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닦는데 더



새마을 담당관  
송 언 종

큰 뜻이 있다. (시간적으로 : 현재→미래지향적)  
나. 새마을운동의 내용은 새마을정신의 개발과 그 실천이다.

### (1) 반성·자각·분발(잘 사는 길)

새마을운동의 목적이 잘 살기에 있다면 이 운동의 내용은 당연히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사는 길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볼때 오늘(현재)은 어제(과거)의 산물이고 내일(미래)은 또한 오늘의 결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남들 보다 잘 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어제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잘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과거를 냉정히 반성하여 그속에서 우리가 못살게된 요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데에 있다.

우리가 다른 선진국 국민들과 같이 잘살지 못하고 낙후된 요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선진국 국민들의 근대화 의 과정(역사)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대조해 보는데서 얻을 수 있다. 오늘날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선진국 국민들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거의 한결같이 그 선대들이 땅과 지혜를 쓸아 피나는 노력을 다한 값진 교훈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덴마크, 이스라엘, 서독의 경우)

미국이 세계의 대국으로 성공하는데 있어서 그 넓은 영토, 풍부한 지하 자원과 쾌적한 기후 조건이 많은 도움을 준 것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바로 그 영토에서 살면서도 미개국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원주민(인디안) 시절을 생각해 볼때 역시 오늘의 미국 건설의 주된 요인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된 이주민들의 개척정신에 돌릴 수 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한나라 국민들이 잘살고 못살고를 판가름하는 근본 요인은 영토의 광활이나 자원개발의 부핍에 있지 않고 사람의 정신자세와 노력의 정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못사는 주원인도 우리 자신과 우리 선대들의 정신자세와 노력이 선진국민들의 그것보다 뒤졌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근세 역사를 돌이켜 볼때 :

○ 민족성의 일면에 사대·의타적인 경향은 없었던가?

○ 근로를 천시하고 공리공론을 일삼아 국가를 기르는데 등한한 일은 없었던가?

○ 국난을 앞에 두고 사색당쟁을 일삼는 잘못은 없었던가?

○ 수구에 얽매어 개혁을 싫어하고 새로운 과학문물을 받아들여 이를 소화·활용하기를 주저한 우를 범한 적은 없었던가?

새마을운동은 위와같이 우리의 역사와 민족성의 일면에 대한 반성과 자각을 바탕으로 분발하여 잘사는 길을 찾자는데서 출발한다.

### (2) 새마을정신의 계발

새마을정신은 우리가 잘살기 위하여 우리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필요한 정신자세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잘살기 위하여 필요한 정신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겠는가?

○ 근면·성실한 정신자세 : 농촌의 농한기를 없애고 도시의 무위도식자들이 부끄러워 못견디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신의를 지키고 성실

한 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정착시켜야 한다(일근은 선지장이요 일태는 악치장이다)

○ 자조·자립정신 : 내 일은 내 책임하에 내 힘으로 처리하는 마음가짐을 체질화해야 한다. 자기의 문제를 남이나 행정기관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하고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폐습을 시정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 협동·단결정신 : 공존·공영하고 일의 능을 높이기 위하여 상부상조하고 협동·단결하는 정신을 길드려야 한다. 이것은 결코 자주·자조·자립정신을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주·자조·자립 정신을 전제로 할 때라야만 참다운 협동·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에 의한 타방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협동은 없어질 것이다. (품앗이의 전통 : 1인 + 1인 = 2인 + α)

○ 과학과 합리주의 정신

○ 긍정적인 자세·진취적 실상등

### (3) 새마을운동의 실천

새마을정신의 실천은 대체로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며 분야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환경개선 분야(복지분야 포함)

- ① 새마을가꾸기(마을 안길 넓히기, 하수구 정비, 마을광장, 공동빨래터,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건설등)
- ② 농로확장과 정비
- ③ 지붕·주택·담장개량
- ④ 소하천가꾸기(세척포함)
- ⑤ 간이급수시설 및 위생우물
- ⑥ 국도가꾸기(도로변, 철도변 등)
- ⑦ 농어촌 전화사업
- ⑧ 리동통신시설 등

○ 증산·소득증대 분야(생산기반확충 포함)

- ① 새마을생산협동사업(집단지배, 퇴비증산 영농시한제, 병충해공동방제, 객토 등)
- ②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구조개선
- ③ 새마을 양묘 및 식수
- ④ 새마을 공장 건설
- ⑤ 농가부업 육성
- ⑥ 마을공동재산 및 생산시설 확대

- ⑦ 마을공동구관장 시설
- ⑧ 새마을금고 육성
- ⑨ 농산물 가격보장과 유통대책 등
- 국민도의 및 기강확립 분야(생활태도개선 포함)

- ① 새마을정신의 생활화
- ② 가정의례준칙의 실천
- ③ 준수정신 함양과 질서지킴기
- ④ 겸소·절약·저축하는 생활기풍진작
- ⑤ 전통윤리의 창조적 개발(총·효·열 등)
- ⑥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
- ⑦ 마을주민총회의 자치적 운영
- ⑧ 새마을청소의 습관화

다. 새마을운동의 추진단위는 마을이며 그 주체는 주민들이다.

새마을사업중에는 개개인 또는 가정과 골목단위로 해야 할 일도 있고 직장단위로 해야 할 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역시 새마을운동(특히 농촌지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래의 생활공동체인 마을(운영동리)이 기본단위가 되고 있다. 이 운동의 명칭을 「새마을운동」이라고 이름한 까닭도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한다고 해서 마을의 범위를 넘는 일을 새마을사업으로 할 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마을이 새마을운동의 기본 단위라고 하더라도 이웃마을 또는 다른 마을과 더불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마을간에 상호협동에 의하여 이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75년 이후로는 2개 마을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소위 「협동권사업」이 점차 확대일로에 있다.

또 새마을운동의 주인은 주민들이지 결코 행정기관이나 관이 아니다. (민간주도운동)

초창기에 지방행정기관 특히 시·군·읍·면 공무원들이 새마을운동을 선도 자각했기 때문에 마치 공무원(관)이 이 운동의 주체요 마을주민들은 행정기관이 시키는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추진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이며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은 뒤에서 이 운동을 밀어주는 지원자요 협조자일 뿐이다.

## 2. 지난 6년간의 결과

### 가. 개 관

돌이켜 보건대 지난 70년 4월 22일 박대통령 각하께서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신 이래 71년 새마을가꾸기 시험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고 여기에서 얻은 자신감이 힘이 되어 72년도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추진을 보게 되었고 한마음 한마음씩 접화 가열된 새마을의 열기는 마침내 요원의 불길처럼 마을에서 마을로 전국적 규모로 번져나가게 되었다.

또한 73년과 74년 해를 거듭함에 따라 범국민적인 참여를 보게 되었고 농촌에서 비롯된 새마을의 불길은 도시에도 미쳐 이제는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불지않는 곳이 없게 되었다.

실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70년대의 전반 6년은 의미있는 6년이었다.

근대화의 의지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바람이 힘차게 번져나간 6년이었고 근대화 이래의 낙후와 침체에 도전해온 자각의 6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인 것이다.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중흥을 향한 장엄한 출발이요 보람찬 새 역사를 향한 대오의 정비이었다.

### 나.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혁(구각의 탈피)

새마을운 6동년간의 성과 그중에 특히 물량적 거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마을안길과 농로등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점이다.

그동안 4만여km의 길을 닦아 두메산골 어느 마을에나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거의 없게 되었고 지게에만 의존해오던 운반 수단도 이제는 차츰 리어카나 경운기 또는 트럭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표 1참조)

둘째로 우리 농촌은 위생우물과 간이급수시설 사업으로 이제는 개울물이나 노처의 웅덩이물을 마시는 주민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고(위생적 생활용수의 공급) 또 소류지, 복, 도수로사업이

새마을운동의 어제와 오늘

<표 1>

구 분	총 목표	총 실적	연 도 별 실 적				
			71	72	73	74	75
○안길정비	26,266 <sup>km</sup>	39,662 (151%)	6,086	12,000	14,400	5,361	1,815
○농로개설	46,167 <sup>km</sup>	41,458 (90%)	27,200	7,351	5,367	정비	1,540
○소교량	78,520 <sup>개소</sup>	51,553 (66%)	9,430	12,800	9,963	9,662	9,968

주민들의 공동작업에 의하여 추진되므로서 대부분 농업수해결) <표 2참조>  
 분의 논의 수리안전담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농

<표 2>

구 분	총 목표	총 실적	연 도 별 실 적				
			71	72	73	74	75
○간이급수시설	15,662 <sup>마을</sup>	11,178 (71%)	903	2,391	2,205	2,662	3,014
○소류지	10,122 <sup>개소</sup>	8,032 (82%)	3,033	286	11	—	4,972
○보설치	22,737	11,301 (50%)	—	822	1,482	3,072	5,927
○도수로	1,043	1,590 (39%)	—	213	692	291	374

셋째로 지난 60년대말까지만 해도 겨우 27%에 불과했던 농촌전화율이 이제는 그 2배가 넘는 65%로 크게 향상되었고 이와 같은 속도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77년이나 78년까지는 모든농

가가 전기불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농가의 작업시간이 늘어났고 많은 분야의 생산수단이 또한 인력에서 동력으로 바뀌고 있을뿐 아니라 선풍기,

<표 3>

구 분	총 목표	총 실적	연 도 별 실 적				
			71	72	73	74	75
전 화 사 업	2,532 <sup>처호</sup>	1,643 (65%)	848	164	308	172	150
마 을 통 신	18,633 <sup>리동</sup>	8,353 (45%)	5,029	463	700	761	1,400

텔레비죤이나 냉장고가 한마을에도 몇대씩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동단위로 전화가 가설되어 통신이 원활히 되고 있으며 도시의 시장정보가 바로 마을에까지 직결되므로서 자급생산의 시대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이 트이고 있는 것이다. <표3>

이상에서는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이룩한 물량적 업적을 농촌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사항으로 길과 물과 불과 통신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 농촌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똑같은 비중,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국토의 방위에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있는 것이다. 농가의 주거환경이 그렇고 마을의 협동 이용시설이 그러하며 농촌의 생산기반시설 또한 크나큰 변모를 거두고 있어 전국 방방곡곡 어디에가나 어제와 오늘이 판이하게 구획되는 그러한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 의식의 변혁

돌이켜 보면 우리민족은 불과 몇년전만 해도 안일한 타성에 젖어 무기력했고 무슨 일에도 자신을 잃고 안되는 것으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풍조는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의식의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지난 6년간 많은 업적과 교훈을 창조해 왔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이룩한 가장 큰 수확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또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과 용기를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불어 일으킨 점이다. 불굴의 의지와 끈질긴 인내를 배우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일을 통하여 익혀온 것이다.

첫째 우리 농촌의 주민들이 크게 근면해졌다.

우리 농촌에 농한기가 사라져가고 있고 노는 땅이 줄어들고 있으며 또 놀고 먹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은 땀이 곧 돈이요 근면이 곧 소득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 결과는 바로 농가의 소득증대로 나타나 지난 74년부터 농가의 호당 평균소득이 도시노동자의 소득수준을 앞지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 우리 농촌은 자조의 바탕위에서 새로운 생활질서가 확립되고 있다.

모든 마을에는 의욕과 생기가 넘치고 또 모든 주민들은 신념과 용기를 갖게 되었으며 긴눈으로 내일을 내다볼 줄 알게 되었다.

또한 농촌에는 자조정신이 생활 깊숙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마을마다 마을 규약을 스스로 결정하여 규약에 따라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마을마다 개발계획을 스스로 결의하여 년차적으로 마을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농가별로 저축목표 소득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러한 자조자세는 국가의식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가의 이익과

세째 우리 농촌은 협동을 통한 새로운 생활질서가 확립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비록 높은 생산적 윤리로 발전되어 오지는 못하였지만 우리의 전통속에는 향약과 계,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협동의 미풍이 연면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협동의 미풍이 지난 6년간 출기차게 실천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하나의 생활질서로서 또 생산윤리로서 오늘의 사회에 알맞도록 창조적으로 개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협동의 영역과 질이 크게 확대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마을 단위 협동에서 지역협동으로 근인권 협동에서 경제적 협동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몇 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량을 가설하고 수원을 개발하여 대단위 소득사업을 추진할 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추세를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라. 소득의 증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난 6년 동안 마을환경이나 의식구조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크게 높인 점이라고 할수 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은 해를 거듭함에 따라 외형보다는 내실을 환경보다는 소득을 지향하면서 발전하여 왔고 행정지도 또한 여기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리하여 웬만한 마을에는 기본적인 마을의 도로망이 완성되고 농업용수시설이 크게 개선되었는가 하면 주민들의 협동생산시설도 상당한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 농민들 또한 그동안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익힌 근면 협동의 기풍을 오직 생산소득에 집결시켜 나가므로써 그 소득수준이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 지난 72년 이래 전국 34,665개 마을중 지역별 마을수준별로 500개 마을, 44,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마을 호당 72년에는 426천원, 73년에는 529천원, 74년에는 712천원으로 높아지고 있다.

3. 앞으로의 과제

가.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생산기반사업의 완성  
우리의 눈을 새마을 현장으로 돌려보자. 산간

벽촌, 도서낙도 할 것 없이 거기에는 놀라운 변모와 발전이 이룩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물랑면에 있어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수적인 농촌기반사업중 주요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76년 5월말 현재

- 지붕개량사업이 2,075천동 목표에 92%
- 농로정비사업이 46,167km 목표에 93%
- 농업용수시설이 1,269천ha 목표에 83%

를 달성하였고, 간이급수시설이 15,662개소 목표에 88%, 소하천정비사업이 17,239km 목표에 33%, 마을창고가 34,665동 목표에 45%, 농촌전화사업이 2,532천호 목표에 70%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81년도까지는 나머지 사업의 완성은 물론 사업의 질적인면에 있어서도 보다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지금까지는 사업의 단위를 마을주민의 협동에 의한 마을내의 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앞으로는 마을간의 협동을 통한 지역단위 개발사업으로 차원높게 확대 발전시키고 사업의 영역 또한 주거권 중심의 필수사업정비에서 활동권 중심의 국토종합정비의 범위로까지 넓혀 나가면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손쉬운 사업부터 우선하여 완성시켜 왔으나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계획성있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나. 증산소득목표의 달성

새마을운동은 잘살기 운동이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증산과 소득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일이다. 앞으로 모든 마을을 소득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협동체로 육성해 나가면서 지역단위로는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입지에 알맞은 주산단지조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한편 식량의 자급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마을증산운동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보아 쌀에 있어서는 81년도까지는 10a당 453kg 총 3,957만석의 증산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영농방법을 과학화하고 협동영

농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모든 힘을 여기에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80년대 농가 호당소 득목표 140만원을 앞당겨 달성하여야 하겠다.

#### 다. 국민도의와 기강의 확립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과 의욕, “우리도 잘살 수 있다”는 신념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농촌의 이러한 기풍은 앞으로 도시에까지 적극 확대 보급시켜 나가므로써 밖으로 이룩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자각이 이루어지게 하고 이러한 자각의 터전위에서 근면 자조 협동하는 행동철학과 애국, 애족 그리고 유신이념으로 집약되는 새마을국민기강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다.

#### 라. 도시새마을운동의 기반확립

지금까지는 농촌 새마을운동의 뜨거운 열기가 도시에 확대 보급되므로써 회의적이고 방관적인 자세에 있던 도시민들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방안은 모색하게 되었고 손쉬운 사업을 통하여 참여의욕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도시새마을운동이 점화되어 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농촌과 도시의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방향을 체계화하여 농촌에서는 생산과 소득을 중심으로한 마을단위사업에 그리고 도시에서는 질서와 시민도의확립에 목표를 둔 조직단위활동에 각각 중점을 둌으로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총화참여 기풍을 적극 조성해 나가야 하겠다.

따라서 도시새마을운동은 대상별로 중점지도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 가정에서는 근검 절약하는 생활기풍을 조성하고
- 지역 단위로는 총화하는 근인협동을 실천토록 지도하는 한편
- 직장은 능률증대와 생산성향상 등 생산적 직장기강을 확립하고
- 학교에서는 산학협동을 통하여 향토개발에 적극 참여케 하는데 각각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목표한 바 깨끗한 도시, 질서있는 도시, 품위있는 도시를 건설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